

8개월만에 PGA 복귀 최경주 “전성기 때 스윙 스피드 나온다”

재도약 위해 10kg 넘게 감량 “설레기 보단 내 경기력 궁금”

“설레는 것보다는 내 실제 경기력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다.”
 ‘탱크’ 최경주(49·사진)가 8개월 만에 미국프로골프(PGA)투어 무대에 복귀한다.
 최경주는 다음 달 1일부터 나흘 동안 미국 애리조나주 스코츠데일의 TPC 스퀘어힐(파71)에서 열리는 PGA투어 웨이스트 매니지먼트 피닉스오픈(이하 피닉스오픈)에 출전한다.
 지난해 6월 메모리얼 토너먼트를 마치고 병가를 냈던 최경주의 PGA투어 복귀전이다.
 실전에 나서는 것은 작년 10월 한국프로골프(KPGA) 코리아투어 최경주 인비테이셔널 이후 넉 달 만이다.
 최경주는 “부담감이 없지는 않다”고 복귀 소감을 털어놓았다.



“아무래도 잘 해야겠다는 생각이 앞선다. 설레기도 하지만 실제 경기에서 내 경기력이 어느 정도인지가 더 궁금하다”는 최경주는 “연습 라운드에서는 큰 문제는 없었다”고 말했다.
 지난해 재도약을 위해 10kg가 넘게 살을 뺐 최경주는 어느 해보다 알찬 통계 훈련을 소화했다.
 중국 광저우에 해마다 차리는 최경주 재단 골프 아카데미에서 주니어 선수들과 3주 동안 스윙을 가다듬었고 매일 아침과 저녁에는 체력 훈련을 빼먹지 않았다.
 지난해 감량을 할 때부터 시작한 단백질 위주의 식단을 꾸준히 지켜 몸무게는 작년에 감량했던 79kg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최경주는 “몸 상태는 가장 좋았을 때 기준으로 80%가량 올라왔다. 옛그제 스윙 스피드를 재봤더니 클럽 스피드가 지속 109마일이 찍혔다. 2007년

메모리얼 토너먼트 우승 때와 같다. 드라이버 비거리도 300야드까지는 나온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경주는 “첫 대회이니만큼 무리하지는 않겠다”면서 “일단 컷 통과가 목표”라고 입을 냈다.
 최경주는 아직 아이언샷 핀 근접도가 만족할 수준은 아니고 쇼트 게임 감각도 실전을 통해 끌어올려야 한다고 진단했다.
 실전 감각 회복 못지않게 이번 대회에서 최경주가 주목하는 건 자기력이다.
 “연습 라운드, 프로암, 그리고 4라운드 경기 등 6라운드를 연습 치르면서도 체력과 집중력을 유지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먼저다. 그다음은 2주 연습, 3주 연습 이렇게 대회를 치르면서도 체력과 집중력을 지킬 수 있도록도 점검해야 한다”
 이번 대회를 복귀전으로 선택한 것도 따뜻한 기온 속에 비거리 부담이 없는 코스라는 점을 고려했다.



“심석희 선수 응원합니다” 조재범 전 코치의 성폭행 의혹 사건과 관련해 30일 심석희의 고향인 강원 강릉시 사회단체들이 월화거리에서 조 전 코치의 처벌 등을 촉구하는 시민 서명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조재범 1년6개월 실형...심석희 측 “형량 가벼워”

쇼트트랙 대표팀 심석희(한국체대) 측은 조재범 전 국가대표 코치의 실형 선고에 대해 “범행에 비교해 가벼운 형량이 나왔다”고 밝혔다.
 심석희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세종의 임상혁 변호사는 30일 전화통화에서 “1심보다 무거운 판결이 선고돼 다행이지만, 범행에 비교해 가벼운 판결이 나와 아쉬운 게 사실”이라며 “심석희가 무차별적인 성상 폭행으로 많은 고통을 받은 점을 고려하면 실망스러운 결과가 나왔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는 (수사 중인) 조재범의 성범죄 혐의를 밝히는데 집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 변호사는 “현재 조재범은 성폭력 범행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데, 이는 심석희에게 또 다른 고통을 주는 것”이라며 “빨리 관련 내용을 인정하고 처벌을 받는 게 최소한의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수원지법 형사4부(문성관 부장판사)는 상습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코치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번 재판 심판 대상은 상습상해와 재물손괴이며, 성폭행 부분은 해당하지 않는다. /연합뉴스

은퇴 밝힌 머리 고관절 부위 수술...웬블던 코트 설까

올해 안에 은퇴 계획을 밝힌 앤디 머리(225위·영국·사진)가 고관절 부위 수술을 받았다.
 머리는 30일 자신의 소셜 미디어에 병원 침대에 누워 있는 사진을 공개하며 “28일 런던에서 수술을 받았다. 지금은 여러모로 힘들지만 회복하고 나면 통증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한다”는 글을 올렸다.
 2012년 US오픈과 2013년과 2016년 웬블던 등 메이저 대회에서 세 차례 우승한 머리는 고질적인 허리, 고관절 부위 부상 때문에 최근 좀처럼 코트에 나서지 못했다.
 2017년 US오픈부터 지난해 웬블던까지 1년 정도 메이저 대회에 불참한 머리는 지난해 1월 허리 부위 수술을 받았고, 1년 만에 다시 수술대에 올랐다.



그는 지난해 US오픈에서 2회전 탈락했고 올해 호주오픈을 앞두고는 이번 시즌이 자신의 마지막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호주오픈 1회전에서 로베르토 바우티스타아웃(18위·스페인)을 상대로 먼저 두 세트를 내주고, 다시 두 세트를 만회해 승부를 5세트로 몰고 갔으

나 분파한 머리는 올해 웬블던을 자신의 은퇴 무대로 삼고 싶다는 뜻을 내비쳤다.
 그러나 잉글랜드 프로축구 첼시 구단의 팀닥터를 지낸 랄프 로저스는 미국 ESPN과 인터뷰에서 “머리가 올해 웬블던에 출전한다면 매우 놀라운 일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3~4개월의 경과가 매우 중요하다”고 전망했다.
 올해 웬블던은 7월 1일에 개막한다. /연합뉴스

도쿄올림픽 육상 7~8종목 결승 오전에 열릴 듯

미국 시청자 위해 시간 조정 논의
 2020년 도쿄올림픽 육상 트랙과 필드 7~8종목의 결승이 오전에 열릴 것으로 보인다.
 ‘미국 시청자’를 위한 시간 조정이다.
 일본 닛칸스포츠는 30일 “국제육상경기연맹(IAAF)과 시간 조정을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미 육상 도로종목인 마라톤과 경보 경기는 이른 아침에 치르기로 했다.
 일반적으로 마라톤과 경보는 오전에 열리고 도쿄 올림픽에서는 폭염을 걱정해 오전 6시 이전에 경기를 시작하는 방안까지 고려 중이다.
 트랙과 필드 종목의 결승 시간 조정은 다른 이유 때문이다.
 닛칸스포츠는 “미국 방송사가 ‘미국의 골든타임

에 육상 결승을 중계하고 싶다’고 IOC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보통 올림픽 육상 트랙과 필드는 예선을 오전에 편성하고, 오후에 결승을 치른다. 그러나 예선 올림픽에서도 몇몇 종목의 결승 시간을 오전에 편성한 사례가 꽤 있다. 미국 방송사의 입김 때문이었다.
 미국과 일본의 시차 때문에, 일본시간 오전에 경기가 열려야 미국 시청자들은 퇴근 후에 생중계를 시청할 수 있다.
 닛칸스포츠는 “미국 선수의 우승이 유력한 7~8개 종목의 결승 시간을 오전으로 조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연합뉴스

산행안내

2월 9일(토)
 ▲광주호신회 2월 9일(토) 강원도 정선 하늘길 운탄고도. 03:00 풍암동 롯데마트 7주차장출발. 03:25 롯데백화점. 03:40 예술회관후문 *다음카페 광주호신회 ☎ 010 4621 2166, 010 6702 9796

2월 10일(일)
 ▲광주자연보전단사회 2월 10일(일) 도덕산-천개산-백방산 종주산행(경남 통영/고성). 영주체육관 07:00, 무동경기장 07:20, 동광주출발 07:40 *다음카페 광주자연보전단사회 ☎ 010 3666 3291, 010 2663 0304

▲광주산사모산우회 2월 10일(일) 남해 설촌산, 영주 모아레포츠 입구 06:10, 상무 무각사 06:20, 광주시의회 06:25, 운남 21세기병원 06:35, 수안 자하도 위 승강장 06:40, 비엔날레 주차장 06:50, 문예회관 후문 07:00 *다음카페 광주산사모산우회 ☎ 010 3603 8370, 010 3606 8081

2월 13일(수)
 ▲광주청록산악회 2월 13일(수) 경남 가장 해파랑길 1 구간 3코스(19.4km). 백운로타리타이어뱅크앞 06:30, 교직원공제회관 06:40, 예술회관후문 06:50, 동광주진입로승강장 07:00 *다음카페 광주청록산악회 ☎ 010 8612 4504, 010 3000 1134

은인을 찾습니다
 송원대학교 학생처에 근무했던
 조숙자님을 찾고 있습니다.
 연락처를 알고 계신분은 전화 연락 부탁드립니다.
 후사하겠습니다.
 양 남 섭
 ☎ 010-3777-1192

모텔 전문
 ●임대·매매·교환●
사랑공인증개사
 공인증개사 양 광 식
 ☎ 010-4247-7879

상속한정승인공고
 • 피상속인: 장 김연조(461002-XXXXXX)
 • 피유족: 김연숙(500715-XXXXXX)
 • 상속기준지: 여주시 봉산동 406
 피상속인 장 김연조의 상속인은 위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 상속한정승인을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2.25호로 신청하여 2019년 1월 24일 심판 결정함으로써 피상속인에 대한 일정한 재산 및 수증자는 공고일로부터 신고기간내에 채권신고를 하지 기바라며 위 기간이 지나면 청산서 제의됩니다.
 2019년 1월 31일
 • 상속인: 1. 김수자(440320-XXXXXX) 여주시 덕안동 5, 2층 202호(덕동동, 주공아파트)
 2. 김연숙(500715-XXXXXX) 여주시 봉산동 406(동동, 신영원재개발아파트)
 3. 김숙자(531110-XXXXXX) 부산 북산진구 서천로 68번길 33(전포동)
 4. 김정숙(500223-XXXXXX) 여주시 신기동 20, 303호 303호(신기동, 주공아파트)
 5. 김광희(580812-XXXXXX) 여주시 신기동 20, 403호 403호(신기동, 주공아파트)
 6. 김홍순(630417-XXXXXX) 연세대학교 22호 22호(연세동, 대우아파트)
 • 신고기간: 2019. 1. 31. ~ 2019. 4. 5.
 • 채권신고장소: 상속인 1. 김수자의 주소

창녕조씨임보성대국파학수계 제21회 정기총회(속개)
 • 일 시: 2019년 2월 9일 오후 1시
 • 장 소: 전남 보성군 조성면 귀산리 녹색로 4615 (귀산식당)
조직원 ☎ 010-4180-7233

부동산 매매
 전남 영광군 염산면 송림리 258번지
 -대 지 645㎡
 -매매가 1700만원(절충)
 -소유자 010-4243-3858

담양군 공고 제2019-134호
담양군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에 따른 공청회 개최 공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담양군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에 따른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 및 관계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청회 개최를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31일
 담양군수

1. 목적
 ○ 담양군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에 따른 주민 및 관계전문가 의견 청취
 2. 일시 및 장소
 ○ 일 시: 2019. 2. 14.(목) 14:00 ~ 16:00 ○ 장 소: 담양읍사무소 회의실(담양읍 중앙로 83)
 3. 내 용
 ○ 담양읍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사업개요 및 주요일정, 사업효과 등 설명
 ○ 도시재생 관련전문가 토론회 ○ 질의응답 및 주민 의견수렴
 4. 기타사항
 ○ 사업 내용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시는 분은 공청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발표하시기나 개최 후 4일 이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 제출기한: 2019. 2. 18.(월) 18:00(도착분에 한함)
 - 제 출 지: 우편접수: 담양군청 도시디자인과 도시재생담당자(담양읍중앙로 1371) • E-mail: hjlhot@korea.kr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시디자인과 ☎ 061-380-311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LOTTE CINEMA | 총정리
 1관 극한직업
 2관 내안의 그놈
 3관 극한직업
 4관 극한직업, 공룡메카드
 5관 극한직업
 6관 극한직업
 9관 말모이
 7관 씨네키움 내안의 그놈, 클래식, 베스와 바다
 8관 씨네키움 말모이, 몬스터 피크, 베스와 바다, 크리미널 마인드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즐거움 문화상책
 광주문화예술회관 공연안내
 문의 (062)613-8353
 광주시립교향악단 제34회 정기연주회 슈만의 봄
 광주문화예회관 대극장
 3.8(금) 19:30
 김이민의 11시 클래식 산책 3.12(화) 11:00
 사랑의 꿈
 광주문화예회관 소극장
 해설이 있는 청소년 음악회 클래식 큐레이터: 3.21(목) 18:30
 낭만에 대하여
 광주문화예회관 소극장
 낭만에 대하여

목가구와 달항아리
 광주문화예술회관 기획전시 2019. 2. 21. ~ 3. 24
 목가구와 달항아리
 광주문화예술회관 갤러리

슈만의 봄
 2019. 3. 8. 7:30
 광주시립교향악단

낭만에 대하여
 김이민의 11시 클래식 산책

사랑의 꿈
 김이민의 11시 클래식 산책